

영아의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어머니의 민감성과 영아의 기질*

Relations of Maternal Sensitivity and Temperament
to infants Attachment Security

박 경 자**
Park, Kyung Ja

ABSTRACT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 temperament were studied in relation to infant attachment security. Subjects were 47 one-year-old infants and their mothers from intact upper-middle class families. Mothers sorted the Attachment Q-set (Waters, 1987, version 3.0) and filled out the Toddlers Temperament Questionnaire(Chu, 1992). Maternal sensitivity was observed in the home for two 3-hour sessions, and observers completed the Maternal Behavior Q-set(Pederson, Moran et al., 1990). Attachment security scores of the infants, using criterion scores developed with Korean infants, were .42, which is comparable to previous studies. Infants who were securely attached to mothers showed more secure-based behaviors and compliance, enjoyed physical contacts, and showed less fussy/difficult behaviors with mothers. Mothers of girls were observed to be more sensitive to their infants' signals than mothers of boys. Maternal sensitivity scores were not related to infant security scores. However, maternal sensitivity was related to less compliance to mothers for boys.

* 이 논문은 1997년 한국 학술 진흥 재단의 학술 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I. 서론

1.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 민감성

대부분의 영아는 생후 1년까지는 한 명 이상의 대상에게 애착을 형성한다. 생애 초기에 형성되는 애착은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되며, 애착 형성은 오랜 기간 동안 성인에게 자신의 삶을 의존해야 하는 영아에게는 생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진화론적으로 지속되어 온 인류의 종 특유의 행동으로 간주된다(Bowlby, 1958).

Ainsworth(1973)에 의해 애착의 개인차를 측정할 수 있는 낯선 상황 실험이 고안된 이래로 애착 연구는 미국에서 1970년대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Ainsworth는 가정에서 수유시, 영아가 울 때, 아기를 안아줄 때, 그리고 얼굴을 서로 맞대는 상황에서 처음 3개월 동안 영아가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어머니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로 영아가 9개월이 되었을 때 어머니-영아간의 상호작용 형태와 어머니를 안전의 기반으로 사용하는 형태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Ainsworth & Bell, 1970). 또한 Ainsworth는 낯선 상황 실험에서 어머니에게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어머니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어머니보다 그 이전 시기 동안의 가정 관찰에서 더 민감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들은 가정에서 70시간 이상의 집중적인 관찰을 통해 어머니 행동 중 4가지 차원, 즉 민감성, 수용성, 협동과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이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분류된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어머니 행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영아의 신호와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러한 신호에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따라서 애착 이

론의 중심 가정은 영아가 양육자와 형성하는 애착의 질은 가까이 있고 접촉하고자 하는 영아의 신호에 대해 양육자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의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영아의 신호에 대해 양육자가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면 영아는 어머니에 대해 반응적이며 애정적인 내적 실행 모델을 갖고, 자신에 대해서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개체로 인식하여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어머니와 자신에 대한 내적 실행 모델은 영아가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형성하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Bretherton, 1985).

영아의 안정된 애착 형성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 방식, 특히 민감성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에 대해 애착 이론은 이와 같이 분명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두 변인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에서는 그 결과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Pederson과 Moran(1995)은 8개월과 12개월 때 어머니 행동 Q-set(Maternal Behavior Q-set)로 어머니의 민감성을 측정하고 12개월 때 Waters(1987)의 애착 Q-set(Attachment Q-set)로 영아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였다. 영아의 애착 행동 Q-set는 어머니와 관찰자가 각기 독자적으로 분류하였다. 영아가 8개월과 12개월 때 측정한 어머니 민감성 점수간에는 .71의 상관을 나타내어 어머니의 민감성은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보였다. 또한 8개월 때 어머니의 민감성은 12개월 때 관찰자가 분류한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는 .61의 상관을, 어머니가 분류한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는 .30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12개월 때의 어머니 민감성과 12개월 때 어머니가 분류한 영아의 애착 안정성간에는 .49의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은 12개월 영아가 어머니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데

에 있어 그 이전 시기와 현재의 어머니 민감성이 중요한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중류층 가정을 대상으로 연구한 Pederson, Moran과 동료들의 초기 연구(1990)에서도 어머니 민감성과 12개월 영아의 애착 안정성간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r=.49$)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 민감성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으나,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 양육 행동과 애착 안정성간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들은 만 4세 유아들의 애착 안정성이 어머니 양육 행동 중 어머니의 반응성과 .46(박용임, 1998), .41(박용임·유명희, 1997)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어머니 민감성과 애착 안정성에 관한 연구들을 재분석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이 둘 간에 유의하지만 낮은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De Wolff와 van Ijzendoorn(1997)은 21개의 연구들을 재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민감성과 영아의 애착 안정성간에 .24의 유의하지만 낮은 상관이 있음을 보고 하였다. van Ijzendoorn, Juffer와 Duyvesteyn(1995)은 어머니의 민감성과 영아의 애착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인 또는 치료적인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는 12개의 연구들을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민감성과 영아의 애착 안정성은 인과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민감성을 증진시켜주면 적기는 하지만 영아의 애착 안정성이 증진되었다. 이들은 어머니의 민감성은 애착 이론에서 영아의 애착 안정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며,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위한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하였다.

Goldsmith와 Alansky(1987)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영아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영아

간에 어머니의 민감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 13개의 연구들을 상위 분석(meta-analysis)을 통해 재검토한 결과, 그 효과의 크기는 2.48에서 -.18 SD 단위이며, 평균적으로 $\frac{1}{3}$ SD로서, 적거나 중간 정도의 효과의 크기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어머니 민감성과 영아 애착 안정성의 관계를 재분석한 연구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머니의 민감성은 영아의 애착 안정성에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하나의 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어머니 민감성과 영아의 애착 안정성 간에 유의한 관계를 밝히지 못한 연구들도 다수 있다. Bub, Johnson과 McCartney(1999)는 형제들간의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 민감성과의 관계 연구에서 어머니 민감성과 15, 24, 36개월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는 .17~.31, 형제의 애착 안정성과는 .08~.20의 상관을 보여 이 둘간에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영아의 애착 안정성이 어머니의 양육 방식과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박용임(1995)은 상, 중, 하 사회 계층을 모두 포함하는 가정에서 표집된 14~20개월의 영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정된 낯선 상황 실험 절차를 사용하여 영아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였다. 어머니의 민감성은 어머니가 질문지를 완성하는 동안 영아가 어머니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신호를 보낼 때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3분간 관찰하여 평정하였다. 영아의 애착 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방식을 비교해 보면,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 행동에서만 안정 애착아와 불안정 애착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불안-회피 애착아의 어머니들이 영아에게 정서적으로 무관심하고, 영아를 방임하며, 신체적으로 체벌하는 등의 부당한 양육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민감성은 안정 애착 집단과 불안-회피 애착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홍계옥과 정옥분(1995)은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반응성과 유아의 애착 유형간에 .00~.05의 상관을 보여, 어머니의 반응성이 유아의 애착 유형과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어머니 민감성과 영아 애착의 관계는 영아 애착의 측정 방법에 따라서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Seifer와 동료들(Seifer, Schiller, Sameroff, Resnick, & Riordan, 1996)은 어머니 민감성이 Q-set에 의한 애착의 안정성 점수와는 중간 정도의 상관이 있으나, 낯선 상황 절차에 의한 영아의 애착 분류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아의 안정된 애착 형성에 있어 어머니 민감성의 효과는 애착이론이나 Ainsworth의 고전적인 연구들에서 나타난 것보다는 그리 강하지 않거나 없을 수도 있다.

2. 영아의 기질

영아의 애착과 기질간의 관계는 이론적, 실제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생후 1년 정도에 측정되는 영아의 애착 체계가 그 전까지의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이러한 상호작용이 형성되는데 영아의 기질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쉽게 가정할 수 있다. 생후 1년 동안 영아의 기질은 어떠한 유형의 애착을 형성하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영아간의 상호작용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정서적 표현이 아주 강렬하며, 화를 낸 후 쉽게 긍정적인 기분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영아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있어 중요한 성공적인 상호 규제를 덜 경험하게 된다(Calkin & Fox, 1992; Seifer et al.,

1996). Vaughn과 동료들(1992)은 유아가 적응성이 낮고 활동적일수록 어머니는 유아가 까다롭다고 인지하며, 어머니가 까다롭다고 인지하는 유아들은 불안 애착 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Belsky와 Rovine(1987)의 연구에 의하면 전통적인 A, B, C 유형의 애착 분류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A1-B2 영아들이 B3-C2 영아들보다 자율적인 안정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신생아기에 더 깨어있고 긍정적으로 반응적이었으며, 어머니들은 A1-B2 영아들이 3개월 때 덜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영아의 기질이 영아가 안정적인 혹은 불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가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안정성이나 불안정성이 표현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기질 특성이 애착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은 국내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홍계옥과 정옥분(1995)은 5~6세아의 기질적 특성이 애착 유형과 유의 있는 상관을 보여, 유아의 활동성은 Main과 Cassidy(1988)의 면접에 의한 애착 분류 중 안정형 애착과 부적 상관을, 불안-회피형 애착과 정적 상관을 보이지만, 유아의 적응성은 안정형 애착과 정적 상관을, 불안-조정형 애착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기질은 애착의 안정성을 이해하거나 안전의 기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박용임, 1995; Sroufe, 1985; Vaughn, Lefever, Seifer, & Barglow, 1989).

영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의 양육 행동 및 민감성과의 관계도 연구되었다. 어머니의 민감성은 부모 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 중 어머니 분야의 스트레스와는 관계가 없었으나 아동 분야의 스트레스와는 -.36의 유의 있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Pederson, Moran et al., 1990). 이는 자녀의 기질적 특성이나 자녀 양육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어머니들이 자녀가 보내는 신호나 요구에 덜 민감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영아의 애착 안정성에 있어 어머니 민감성과 영아의 기질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은 그 이론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리 많이 연구되지 않았고, 그 결과들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 나라에서는 1세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일정 시간 동안 관찰하여 측정된 연구가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가정에서 우리 나라 1세 영아들이 가정에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애착 행동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다. 또한 애착이 어머니-영아간의 상호작용의 역사를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안정된 애착 형성이 어머니의 민감성과 영아의 기질적 특성과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 1세 영아들이 가정에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애착 행동의 특성은 어떠한가?
2. 어머니의 민감성은 영아의 애착 안정성 및 애착 행동과 관계가 있는가?
3. 영아의 기질적 특성은 영아의 애착 안정성, 어머니 민감성과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1세 영아 47명(남아 26명과 여아 21명)과 그 어머니이다. 연구 대상의 표집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자 주위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에 의해 연구 대상이 선정되었다. 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 중에서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어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영아는 첫 번째 관찰일을 기준으로 만 1세에서 전후 2주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 대상 영아의 평균 연령은 12.4개월($SD = 0.92$)이었다.

연구 대상이 된 영아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1.4세($SD = 3.2$)이었다. 이 어머니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대다수의 어머니(12명,

87.2%)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었다. 연구 대상 어머니 중 36명(76.6%)은 전업 주부이고 11명은 취업모이며, 취업모의 대부분(10명)은 전문직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상류층 가정의 특성을 보였다. 연구 대상 영아 중 37명(78.7%)은 주양육자가 어머니이고, 5명(10.6%)은 친척, 5명(10.6%)은 친척 외 타인이 주양육자이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영아의 애착의 질

영아의 애착은 Waters(1987)의 애착 행동 Q-set(Attachment Behavior Q-set, version 3.0)로 측정하였다. 애착 Q-set은 90개의 카드로 이루어

져 있으며, 어머니는 일주일간 영아의 행동을 관찰한 후, 90개의 문항을 영아의 행동을 특징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문항에서부터 가장 특징적이지 않은 문항까지 9개의 파일에 각각 10개씩 카드를 분류한다. 이와 같이 분류된 문항들은 각각 9점(가장 특징적인 영아의 행동)에서부터 1점(가장 특징적이지 않은 문항)까지 점수를 받는다. Q-set의 자세한 분류 방법은 어머니 민감성 Q-set의 분류 방법에 제시하였다.

2) 어머니 민감성

어머니의 민감성은 Pederson과 Moran 등(1990)이 개발한 어머니 행동 Q-set(Maternal Behavior Q-se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어머니 행동 Q-set는 Ainsworth의 초기 연구에서 실시된 오랜 시간의 집중적인 가정 관찰의 기록에 기초하여,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민감성을 측정할 수 있는 90개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머니 행동 Q-set는 영아가 어머니의 반응을 요구하는 신호나 상황을 어머니가 포착하고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어머니의 경향성을 측정하는 9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항들은 어머니의 상호작용 양식, 아기의 상태에 대한 민감성, 수유시의 상호작용, 가정이 어느 정도 아기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와 같은 어머니의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관찰자들은 영아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시간대에 영아의 집을 방문하여 3~4시간 동안 영아와 어머니 행동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며 어머니와 영아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가정 방문을 끝낸 후 이와 같은 관찰 기록에 기초하여 관찰자들은 어머니 행동 Q-set를 분류하였다. 먼저 90개의 Q-set 문항을 어머니의 행동과 가장 비슷한 행동 파일로부터 어머니의 행동과 가장

비슷하지 않은 행동들까지 각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특징을 9개의 파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파일에는 10개의 문항이 분류되며, 어머니의 행동을 특징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10개의 문항들은 9점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행동과 가장 비슷하지 않은 10문항은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3) 영아의 기질

영아의 기질은 천희영(1992)의 유아용 기질 평정 척도로 측정하였다. 유아용 기질 평정 척도는 어머니들이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자녀와 비슷한 정도를 4점 척도로 대답하는 3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1세 영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5개 문항들을 제외하고, 28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을 통해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요인들은 각각 적응성,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으로 명명하였다.

3. 연구 절차

어머니 민감성과 영아의 애착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훈련된 관찰자가 12개월 영아의 가정을 1주일의 간격을 두고 2회 방문하여, 자연적인 상황에서 집중적인 관찰 노트를 적으면서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처음 방문시 관찰은 3~4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이때 관찰자는 어머니에게 애착 Q-set를 주고, 각 문항의 내용을 어머니들과 같이 읽어, 어머니들이 영아를 관찰할 문항들에 익숙해진 후, 일주일간 자녀의 행동을 관찰한 후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어머니가 영아의 요구나 신호와 연구자들이 제시한 과제로 주의가 분산되는 상황을 만들어 어머니 민감성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더 잘 밝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영아의 기질 평정을 위해 처음 방문시 관찰자는 어머니에게 유아용

기질 질문지를 주어 자녀의 기질 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방문에서 관찰자는 어머니가 애착 Q-set의 분류를 하도록 돕거나, 완성된 Q-set와 기질 질문지를 수거하였고, 처음 방문에서 관찰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2회의 관찰 기록에 의해 관찰자는 어머니 민감성 Q-set를 분류하였다.

관찰자들은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하고 대학원 박사과 석사과정에서 아동 발달을 전공하는 4명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어머니 민감성 Q-set를 위한 관찰과 분류 방법에 대해 훈련을 받았다. 관찰자 훈련과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본 연구자와 4명의 관찰자들이 연구 대상과 동일한 연령의 3명의 영아 가정을 함께 방문하여 3~4시간 동안 자세한 관찰 기록을 적으면서 관찰하고 어머니 민감성 Q-set의 분류를 한 후 각 문항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이 때 각 문항에 대한 분류에서 관찰자간에 2점 이상의 차이가 나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관찰 기록에 의거하여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차이를 줄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훈련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와 모든 관찰자들 간의 Q-set 분류에서 각 문항의 점수 차이가 2점 이내이고, 관찰자간 상관 계수가 평균 .90(범위 .88~.92)에 도달하여 본 관찰을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영아의 애착 Q-set 분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영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는 영아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분류와 전문가들에 의한 기준 점수간의 상관 계수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가장 이상적인 안정 애착아의 상을 기초로 하여 제시한 한국

영아의 애착 안정성 기준 점수(이 영·박경자·나유미, 1997)를 사용하여 영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두 번째로, 영아가 가정에서 보이는 애착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애착 Q-set의 문항들을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Pederson과 Moran(1995)이 분류한 체계에 따라 어머니를 안전의 기반으로 사용하는 행동(14문항), 어머니와 긍정적인 정서를 공유하는 행동(3문항), 어머니 말 듣기(Compliance, 6문항), 어머니와의 신체적 접촉 즐기기(5문항), 때쓰기/다루기 어려운 행동(14문항)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5개 영역별로 각 영아가 Q-set에서 받은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출하였다.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 애착 행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1 검증하였고, 이 둘 간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어머니 민감성은 민감성 기준 점수와 연구 대상 영아의 어머니가 받은 각 문항별 점수와의 상관계수로 점수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민감성 기준 점수는 Pederson과 Moran(1995)이 집에서 12개월의 영아와 상호작용할 때 이상적으로 가장 민감한 어머니의 상에 기초한 10명의 전문가 Q-set 분류에서 각 문항별 점수를 평균하여 제시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어머니 민감성과 영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 그리고 애착 관련 행동의 하위 영역간의 관계는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영아의 기질적 특성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1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영아 기질의 하위 요인과 영아의 애착 안정성, 어머니 민감성과의 관계는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1세 영아들이 가정에서 어머니와 관계에서 보이는 애착 행동의 특성

1) 영아의 애착 안정성

본 연구에서 한국에서 개발된 애착의 표준 점수를 사용하여 산출한 영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의 평균은 .42(표준편차 0.13; 범위 0.07~0.63)였다. 영아의 애착 안정성에 있어 남아($M=0.42$, $SD=0.14$)와 여아($M=0.42$, $SD=0.11$)의 차이는 없었다. 영아의 애착 안정성은 인구학적 변인들, 즉 영아의 연령, 자녀 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 학력, 어머니의 취업 여부, 주양육자가 어머니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2) 애착 행동

영아의 애착과 관련된 상호작용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Pederson과 Moran(1995)이 분류한 애착 행동의 다섯 영역(안전 기반, 긍정적 정서 공유, 신체적 접촉, 말 잘 듣기, 떼쓰기)을 사용하여 영아의 애착 Q-set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Pederson과 Moran(1995)이 분류한 애착 행동의 다섯 영역에서 남녀 영아간에 유의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1>에서 보면, 우리나라 1세 영아들은 어머니를 안전의 기반으로 사용하는 행동과 어머니와의 신체적 접촉을 즐기는 행동들을 비교적 많이 보였다. 또한 어머니를 안전의 기반으로 사용하는 행동은 영아들간에 비교적 개인차가 적었으나, 어머니와 신체적 접촉을 즐기는 것과 어머니와 긍정적인 정서를 공유하는 행동들은 영아간에 비교적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애착 하위 요인의 평균 및 애착 안정성과의 상관(N=47)

	안전 기반	긍정적 정서 공유	신체적 접촉	말 잘 듣기	떼쓰기
평균(SD)	6.81(0.49)	6.09(1.12)	6.73(1.31)	5.66(0.98)	4.50(0.86)
애착 안정성과의 상관계수	0.37**	0.19	0.43**	0.33*	-0.62***

* $p < .05$, ** $p < .01$, *** $p < .001$

이러한 애착 행동의 하위 영역들과 영아의 애착 안정성간의 상관 관계를 보면, 어머니를 안전의 기반으로 사용하는 행동, 어머니와의 신체적 접촉 즐기, 어머니의 말 잘 듣기는 영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와 정적 상관을, 그리고 떼쓰기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와 긍정적인 정서를 공유하는 것은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어머니에게 떼를 쓰거나 까다로움을 그리 많이 보이지 않으며, 가정에서 어머니를 안전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행동을 보이고, 어머니와 신체적 접촉을 즐기고,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영아로 해석될 수 있다.

2. 어머니의 민감성과 영아의 애착 안정성의 관계

4명의 관찰자간에 어머니 민감성 점수는 일원 변량 분석 결과,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민감성 점수의 평균은 0.66(표준편차 .20; 범위 .05~.90)이었다. 어머니 민감성은 영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여아(M=0.75, SD=0.11)의 어머니가 남아(M=0.58, SD=0.23)의 어머니보다 영아에게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t=3.42, p<.01$). 또한 남아의 어머니들은 민감성에 있어 여아의 어머니들에 비해 더 큰 개인차를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 민감성은 영아의 연령, 자녀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 학력, 어머니의 취업 여부, 어머니가 주양육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또

한 어머니 민감성과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는 상관이 없었다($r=-.01$).

어머니의 민감성과 Pederson과 Moran(1995)이 분류한 애착 행동의 하위 요인들과의 상관계수는 <표 2>와 같다. 어머니 민감성은 영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어머니 민감성과 애착 행동과의 관계는 영아의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다. 어머니 민감성은 애착 행동의 하위 요인들 중 남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협동하는 것과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r=-.41, p<.05$).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말을 잘 따르고 협조하는 것은 유의하지는 않으나 어머니 민감성과 .30의 긍정적 상관을 보여, 민감한 어머니의 반응성이 남아에게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것과 상관이 있었다.

<표 2> 어머니 민감성과 애착 하위 요인들과의 상관 계수*

	안전 기반		긍정적 정서 공유		신체적 접촉		말 잘 듣기		떼쓰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어머니 민감성	-0.10	0.09	0.27	0.11	0.15	-0.26	-0.41*	0.30	-0.04

* $p<.05$

† 사례수 : 남아 26명, 여아 21명

3. 영아의 기질적 특성과 영아의 애착 안정성, 어머니 민감성과의 관계

영아의 적응성, 활동성, 생리적 리듬의 규칙성

과 반응성은 남, 여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영아 기질의 하위 요인과 영아의 애착 안정성, 어머니 민감성과의 상관 계수는 <표 3>과 같다.

영아의 기질적 특성 중 적응성, 활동성, 규칙

<표 3> 영아의 기질과 애착 안정성간, 어머니 민감성과의 상관 (N=47)

	적응성	활동성	규칙성	반응성
애착 안정성	.12	.00	.13	.35*
어머니 민감성	-.12	-.23	.24	-.13

* $p<.05$

성은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영아의 반응성은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 유의한 상관($r=.35, p<.05$)을 보였다. 영아의

기질적 특성과 어머니의 민감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에 따라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우리 나라 만 1세 영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는 평균 .42($SD=.13$, 범위 .07~.63)를 나타냈다. 이를 애착 Q-set를 사용하여 영유아의 애착 안정성을 측정된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중류층 가정에서 표집한 1세 영아들을 연구한 Pederson과 Moran 등(1990)은 .40($SD=.17$)의 애착 안정성 점수를, 7개국에서 12개월~55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Posada와 Gao 등(1995)은 평균 .35($SD=.20$), 범위 .24(콜롬비아)~.58(노르웨이)의 안정성 점수를, Posada, Waters, Crowell과 Lay(1995)는 50~59개월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40(범위 -.16~.70)의 안정성 점수를 보고하였다. 한국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이 영·박경자·나유미(1997)는 11개월~33개월의 유아의 연구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30($SD=.20$, 범위 -.30~.74)의 애착 안정성 점수를 보였으나, 사회 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중산층 유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는 평균 .41로 저소득층 유아의 점수($M=.24$)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박용임(1998)은 .30($SD=.21$, -.10~.68의 범위)의 애착 안정성 점수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은 1세 영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는 애착 Q-set를 사용하여 중류층의 영아를 대상으로 애착 안정성을 측정된 국내외의 선

행 연구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 영아들에게 있어 개인차는 더 적었으며, 특히 애착 안정성 점수에서 부적 점수를 받은 영아는 한 명도 없었다.

또한 우리 나라 1세 영아들은 가정에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를 안전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어머니와의 신체적 접촉을 즐기는 행동을 많이 보이며, 이러한 행동은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때를 쓰거나 까다로운 행동은 비교적 적게 보이며 이는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애착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애착 이론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어머니와 조화를 이루어, 이것이 영아에게는 애착/탐색의 균형을 이루는 데에 있어 어머니를 안전의 기반으로 활용하며, 환경을 탐색하는 것과 어머니에게 신체적 접근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와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Ainsworth et al., 1978; Pederson & Moran, 1995).

둘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 민감성은 평균 0.66($SD=.20$)이었다. 중산층 가정의 1세 영아를 대상으로 어머니 행동 Q-set를 사용하여 어머니 민감성을 측정된 Pederson과 Moran 등(1990)은 .73($SD=.18$)의 어머니 민감성 점수를 얻었다. 어머니 행동 Q-set를 사용하여 어머니 민감성을 관찰한 국내 연구가 아직 없어 본 연구에서 얻어진 어머니 민감성 점수를 국내외의 선행 연구와 비교

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얻은 어머니 민감성 점수는 미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어머니 민감성은 영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와 상관성이 없었다. 또한 어머니 민감성은 애착 행동의 하위 유형 중 어머니를 안전의 기반으로 사용하는 행동들, 어머니와의 긍정적 정서 공유, 신체적 접촉의 정도와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남아의 어머니 말 잘 듣기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있었다. 이는 두가지 방향에서의 해석이 모두 가능한데, 민감한 어머니를 가진 1세 남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말을 잘 안 듣는 1세 남아를 둔 어머니들은 이들이 보이는 신호와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두 변인간의 관계의 방향성은 추후 연구들에서 더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민감성과 영아의 안정된 애착 형성과의 관계는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 둘 간에 비교적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Ainsworth(1973), Pederson과 Moran(1995), De Wolff와 van Ijzendoorn(1997)의 주장과, 이 둘간의 관계는 애착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리 강하지 않다는 Goldsmith와 Alansky(1987), Seifer 등(1996)의 주장으로 대별되어진다.

어머니 민감성과 영아의 애착의 안정성간에 상관성이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Thompson(1997)은 애착은 초기의 부모-영아간 관계의 다양한 측면 중의 하나이며, 부모의 민감성은 자녀의 애착 안정성 발달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측하였다. 즉, 수유나 놀이, 일상적인 돌보는 것과 같은 비스트레스적인 상황보다는 영아가 두려워할 때, 불안해 할 때, 불편해 할 때 보여주는 어머

니의 민감성이 영아의 안정적인 애착을 더 잘 예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만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관찰 기간 동안 어머니에게 과제를 주었으나, 대부분의 어머니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어머니 민감성의 개인차를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개인차의 측정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은 Ainsworth의 낯선 상황 실험(1978)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아의 연령에 따라 요구되는 어머니의 민감성의 차원이 다를 수도 있다. 생후 6개월 이전까지는 영아의 울음에 대해 빨리, 그리고 적절히 반응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Belsky, Rovine, & Taylor, 1984), 6개월 이후에는 도전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부모가 조심스럽게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Thompson, 1997).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Q-set는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양육 상황에서 어머니 민감성을 측정하는데는 적절하나, 어느 정도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간 민감성의 개인차는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의 민감성과 영아의 애착 안정성간의 관계를 중재해 주는 변인들도 고려해야 한다. Cowan(1997)은 결혼 관계에서의 갈등, 어머니가 경험하는 외적인 스트레스, 아버지-영아의 관계가 어머니의 민감성과 함께 영아의 애착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민감성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맥락적 변인들이 영아의 애착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어머니 민감성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민감성 점수는 서구에서의 민감한 어머니 상에 근거한 기준

점수와의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자녀 양육에 있어 문화적인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민감한 어머니의 상이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해 보기 위해 구미향과 이양희(1998)가 한국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민감성 표준 점수를 사용하여 영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와의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나 역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02$). 그러나 어머니 민감성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것이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어머니 민감성이 영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델 자체에 대한 의문이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 둘간에 관계가 없다고 밝힌 연구들도 있고, 애착 발달이 어머니→영아로의 일방적인 영향 모델로서보다는 어머니↔영아간의 관계적 모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Bub, Johnson & McCartney, 1999; van den Boom, 1997)도 제기되었다. 어머니-영아의 이인 관계에서 어머니 민감성에 대한 측정 은 어머니의 반응성 뿐 아니라 신호를 보내는 영아의 능력도 반영한다. 따라서 van den Boom(1997)은 어머니 민감성은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이며, 영아의 행동에 대한 참조가 없이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관찰자가 영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일정 기간 동안 영아-어머니의 상호 작용을 관찰해야 하는 본 연구의 절차상 연구 대상이 snow ball에 의해 연구자 주변에서 선정되거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어머니 중에 가정방문을 수락한 일부 어머니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표집상의 제한점에 의해 본

연구의 대상은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 중상류층의 특성을 갖는 비교적 동질적인 대상이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의 민감성은 5명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모두 .40 이상의 민감성 점수를 보여, 어머니에 따라 개인차는 있으나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교적 자녀에게 민감한 어머니들이었다. 또한 영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도 부적 점수를 가진 영아는 한 명도 없이 모두 양의 점수를 보였고, 개인차도 비교적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과 같이 어머니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에게 있어서 비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는 어머니 민감성에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민감성과 영아의 애착 안정성간에 0에 가까운 상관계수를 보인 것은 애착 이론의 가정과는 다른 결과로서, 어머니 민감성이 영아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영아의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는 추후 연구들에서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아의 반응성은 애착 안정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일반적으로 영아의 기질적 특성은 영아의 애착 안정성, 그리고 어머니의 민감성과 별로 관계가 없었다. 영아의 기질이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 민감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 연구에 있어 측정 방법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애착과 기질적 특성을 어떻게 측정하는가는 연구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 관찰자들의 관찰에 의해 측정된 영아의 기질은 Q-sort에 의한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의 민감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나 어머니의 보고에 의한 영아의 기질적 특성은 이 두 변인들과 상관이 없거나 낮은 상관을 보였다(Seifer et al., 1996).

추후의 영아 연구에서는 어머니 보고와 병행

하여 훈련된 관찰자들에 의한 관찰이 이루어져야 하고, 발달적인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그리고 효과의 방향성을 검증하기 위해 종단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구미향 · 이양희 (1998). 모성행동 Q-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1), 129-139.
- 박용임 (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 유형과 그 관련 변인. *아동학회지*, 16(1), 113-131.
- 박용임 (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117-129.
- 박용임 · 유명희 (1997). 애착의 지속성에 관한 단기종단적 연구: 영아기의 낯선 상황 애착유형과 유아기의 애착안정성. *아동학회지*, 18(2), 33-46.
- 이영 · 박경자 · 나유미 (1997). 애착 Q-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18(2), 131-148.
- 천희영 (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 태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홍계옥 · 정옥분 (1995).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모자 애착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99-112.
- Ainsworth, M. D. S. (1973).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B. M. Caldwell & H. Ricciuti(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Vol.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insworth, M. D. S., & Bell, S. M. (1970). Attachment, exploration, and separation: Illustrated by the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41, 49-67.
- Ainsworth, M., Blehar, M.,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elsky, J., & Rovine, M. (1987). Temperament and attachment security in the Strange Situation: An experimental rapprochement. *Child Development*, 58, 787-795.
- Belsky, J., Rovine, M., & Taylor, D. (1984).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5, 718-728.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Bub, K., Johnson, M., & McCartney, K. (1999). A within-family study of mother-child attachment with the Q-sort.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for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 Calkins, S. D., Fox, N. A. (1992). The relations among infant temperament, security of attachment, and behavioral inhibition at twenty-four months. *Child Development*, 63, 1456-1472.
- Cowan, P. A. (1997). Beyond meta-analysis: A plea for a family systems view of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4), 601-603.
- De Wolff, M. S., & van Ijzendoorn, M. H. (1997).

- Sensitivity and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parental antecedents of 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 571-591.
- Goldsmith, H., & Alansky, J. (1987). Maternal and infant temperamental predictors of attachment: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805-816.
- Main, M., & Cassidy, J. (1988).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the parent at age six: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and stable over a one-month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15-426.
- Pederson, D., & Moran, G. (1995). A categorical description of infant-mother relationships in the home and its relation to Q-sort measures of infant-mother interaction. In W. Waters, B. Vaughn, G. Posada & K. Kondo-Ikemura (Eds.). *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2-3, Serial No. 244).
- Pederson, D. R., Moran, G., Sitko, C., Campbell, K., Ghesquire, K., & Action, H. (1990).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Q-sort study. *Child Development*, 61, 1974-1983.
- Posada, G., Gao, Y., Wu, F., Posada, R., Tascon, M., Sch elmerich, A., Sagi, A., Kondo-Ikemura, K., Haaland, W., & Synnevaag, D. (1995). The secure-base phenomenon across cultures: Children's behavior, mothers' preferences, and experts' concepts.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K. Kondo-Ikemura(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thers: 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2-3, Serial No. 244), 27-48.
- Posada, G., Waters, E., Crowell, J. A., & Lay, K. L. (1995). Is it easier to use a secure mother as a secure base? Attachment Q-sort correlates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2-3, Serial No. 244), 133-145.
- Seifer, R., Schiller, M., Sameroff, A. J., Resnick, S., & Riordan, K. (1996). Attachment, maternal sensitivity, and temperament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32(1), 12-25.
- Sroufe, L. A. (1985). Attachment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caregiver relationships and infa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14.
- Thompson, R. A. (1997). Sensitivity and security: New questions to ponder. *Child Development*, 68, 595-597.
- van den Boom, D. C. (1997). Sensitivity and security: Next steps for developmentalists. *Child Development*, 68, 592-594.
- van Ijzendoorn, M. H., Juffer, F., & Duyvesteyn, M. G. C. (1995). Breaking the intergenerational cycle of insecure attachment: A review of the effects of attachment-based interventions on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 securi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2), 225-248.
- Vaughn, B. E., Lefever, G. B., Seifer, R., & Barglow, P. (1989). Attachment behavior, attachment security, and temperament during infancy. *Child Development*, 60, 728-737.
- Vaughn, B. E., Stevenson-Hinde, J., Waters, E., Kotsaftis, A., Lefever, G. B., Shouldice, A.

Trudel, M., & Belsky, J. (1992). Attachment security and temperament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Some conceptual clar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63-173.

Waters, E. (1987). *Attachment Behavior Q-sort (version 3.0)*. Unpublished manuscrip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Stony Brook, NY.